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이 회 영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과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1명이었다. 참가자들에게 1) 간단한 개인 신상 조사지, 2) 심리적 분리 검사, 3) 부모 및 동료에 대한 애착 검사 및 4) 진로태도 측정도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정준상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분리 변인들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 또한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 발달에 대한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관계 변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가 청소년 발달 이론 및 상담 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직업 선택은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Erikson, 1968; Havighurst, 1953). 직업 선택은 처음에 개인의 특성과 어떤 직업에 의해 요구되는 특성을 짝짓는 일회적인

의사결정 사건으로 간주되었으며(Parsons, 1909), 이 견해가 1940년대 말까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기 이래로, 발달 진로 이론가들(Ginzberg, Ginsburg, Axelrod, & Herma,

1951; Super, 1957)은 직업 선택이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 결정이라는 견해에 반박하고 직업 선택을 최종적인 직업 선택까지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 결정과 관련된 발달 과정이라고 제안했다. 직업 선택을 발달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Ginzberg 등(1951)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지만,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Super (1957)였다.

Super(1990) 이론의 기본적 명제 중의 하나는 직업 행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화하며 이 변화의 과정은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의 단계를 따른다는 것이다. 개인은 이러한 진로 발달의 각 단계에 부과된 어떤 발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각 단계를 거쳐 지나가며, 각 발달 단계의 과제는 상이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한다(Jordaan, 1974; Super, Crites, Hummel, Moser, Overstreet, & Warnath, 1957). Super(1957)의 이론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은 진로 발달의 탐색 단계에 해당되며, 이 단계의 발달 과제의 특징은 직업 선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발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 선호를 구체화할 필요성의 지각, 구체화에 있어 자원의 활용, 고려해야 할 요소의 지각, 목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지각, 흥미와 가치의 구별, 현재와 미래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 일반화된 선호의 명료화, 직업 선호의 구체화, 직업 선호의 일관성,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의 보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계획, 직업 선호의 지혜, 구체적 선호에 대한 확신과 같은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Super, 1963).

그런데, 이러한 발달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 과정과 어떤 단계의 발달 과제를 다루는 태도와 행동에는 개인차가 있고(Super et al., 1957),

이러한 개인차를 기술하고 평가할 필요에서 진로 성숙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므로, 진로 발달은 진로성숙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진로성숙을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Super et al., 1957). 첫째 방법은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현재 속해 있는 발달 단계와 그 개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발달 단계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진로성숙을 "탐색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진로 발달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Super, 1955, p. 153)로써 정의한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이 발달 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과제 대처 행동과 똑 같은 과제를 다루는 동료의 대처 행동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진로성숙을 진로 발달 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준비도(Super, 1990)로써 정의한다. 그러므로, 진로성숙은 개인이 다루는 진로 발달 과제의 본질뿐만 아니라 어떤 발달 단계의 과제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과도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진로성숙의 두 번째 개념을 사용하였다. 진로성숙은 진로선택 준비의 태도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에는 진로성숙의 태도적 측면이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Super & Overstreet, 1960), 본 연구는 진로성숙의 태도적 측면에만 국한시켰다.

Super(1957)가 처음으로 직업성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들 연구는 진로성숙이 나이, 성, 지능, 학업능력, 인지양식,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내외통제성, 의사결정양식, 직업가치, 일한 경험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김현옥, 1989; 이기학, 1997; Luzzo, 1993; Osipow & Fitzgerald, 1996; Savickas

& Hartung, 1996). 그러나 진로성숙과 관련된 변인을 조사했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이 가족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하다.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가족 변인은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강경찬, 1997; 김현옥, 1989; Dillard, 1976; Holland, 1981; Lawrence & Brown, 1976; Luzzo, 1991; Nevill & Super, 1988; Super & Nevill, 1984)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진로성숙간의 관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연구된 또 하나의 가족 변인은 부모의 결혼 상태이다. Woodbury와 Pate(1974)는 정상 가정출신의 비행 청소년이 이혼 가정출신의 비행 청소년보다 진로성숙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가족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있어 가족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결혼상태와 같은 가족배경 변인들은 교육이나 상담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정보는 교육 및 상담 실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연구된 또 하나의 가족 변인은 부모의 영향(parental influence)이다. 몇몇 연구자들(Lee, 1984; Lee, Hollander, & Krupsaw, 1986; McNair & Brown, 1983)이 진로성숙을 예언하는데 있어 지각된 부모의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결과는 진로성숙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준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직업적 포부 또한 진로성숙의 관련 변인으로

연구되었다(Dillard & Campbell, 1981; Khan & Alvi, 1983). 그러나 부모의 영향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의 교육적·직업적 포부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이들 변인들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는 진로성숙에 대한 가족의 영향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영향만을 보여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성숙과 가족과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가족 관계 변인 즉, 가족 응집성(family cohesion)과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은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 Olson, Sprenkle, & Russell, 1979)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데, 여기서 가족 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 수준을 말하며, 가족 적응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내적 구조와 기능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복합순환모델의 한 가지 가정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중 한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이나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보다 더 잘 기능 한다는 것이다.

가족과정과 진로성숙을 연결시킨 연구는 복합순환모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분야의 최초의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Hesser(1984)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복합순환모델의 기본가정을 따라, Hesser는 진로성숙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간에는 유의미

한 곡선(curvilinear)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변인들간에 약간의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했으나, 가설과는 달리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는 곡선적이 아니라 직선적이었다. Alger(1993)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가족 응집성은 지향성 및 타협성과는 정적 관계가 있으나 결정성, 개입성, 독립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Hesser(1984)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가족 응집성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가족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경험적 증거는 King(1990)에 의해 제공되었다. 정상적인 고등학생과 청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과의 비교 연구에서, King(1990)은 두 집단 모두에 대해 가족 응집성이 진로성숙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고 보고했다.

위의 연구결과는 진로성숙 발달에 있어 가족관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역동성의 두 가지 측면, 즉,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진로성숙 발달에 있어 가족관계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역동성의 다른 측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Savickas (1990)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는데, 최근에 그는 진로성숙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다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변인을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가족과정 변인은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애착이다. 심

리적 분리는 청소년들이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Hoffman, 1984) 의미하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자녀간의 강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유대를 의미한다(Armsden & Greenberg, 1987).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할 주요 발달 과제이며(Erikson, 1968; Havighurst, 1953), 청소년들의 향후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Okun, 1984). Blos(1967)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Malher, Pine과 Bergman(1975)에 의해 기술된 유아의 심리적 분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며, 건강한 청소년 발달은 대체로 이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에 달려있다(Blos, 1967). 즉,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적 관점을 따라, 많은 연구자들(김정애, 1998; 박찬주, 1993; 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Byrne, Oberman, 1993; Lopez, 1989; O'Brien, 1993; Polk, 1993)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구성개념으로써의 심리적 분리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해왔다. Thomason과 Winer(1994)는 심리적 분리를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homason과 Winer(1994)의 연구는 심리적 분리의 네 가지 측면 중 두 가지 측면(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만을 조사하였고, 진로 발달 검사(CDI: Super, Thompson, Lindeman, Jordaan, & Myers, 1979)의 구체적인 하위 척도대신에 전체척도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애(1998)의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인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애(1998)의 연구는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의 정확한 본질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이들의 연구 결과를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정확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로 발달을 포함한 청소년 발달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강조하는 관점은 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있어 애착의 역할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Ainsworth, 1989; Bowlby, 1988)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애착 관계에 일차적 강조 점을 두고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이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예를 들면, 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1994)이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애착이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청소년 발달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청소년의 진로 발달 영역에 있어 부모-자녀 애착 관계의 역할은 그 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에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구인으로써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유용성을 검토하는 연구(Blustein et al., 1991; O'Brein, 1993; Polk, 1993; Ryan, Solberg, & Brown, 1996)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다양한 진로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져 왔으나, 진로성숙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관련시킨 연구는 Kenny(199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없다. Kenny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Kenny의 연구에는 두 가지 방법론적 문제가 있

다. 첫째, Kenny의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정확한 관계는 알기 어렵다. 둘째, Kenny의 연구는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 발달검사의 단 하나의 하위 척도(진로계획)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 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독립 및 애착 관계의 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주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방법론적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 변인과 관련하여 심리적 분리 변인과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을 사용한 선행 연구(김정애, 1998; Blustein et al., 1991; Lopez, 1989; Ryan et al., 1996)는 일관되게 진로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역할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아울러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방법론적 제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진로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역할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발달에 미치는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부모에 대한 애착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6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82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43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참가자가 정상가정(부모가 결혼해서 현재 함께 사는 가정) 출신이나 아니냐의 여부가 참가자가 자신의 부모와 가지는 분리 및 애착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이 본 연구의 결과에 미칠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 가정 출신이 아닌 18명의 자료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은 총 221명(남자: 115명, 여자: 106)이었다.

본 연구자가 선정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한 교사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였고, 조사 실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미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할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지에 미리 일련번호를 매겼으며,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지는 무선적으로 배열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분리 검사

고등학생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분리 검사(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본 연구자가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다른 태도, 가치, 신념 등을 보여주는 정도를,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은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과도한 승인 욕구, 정서적 거리, 밀접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정도를,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의 동의없이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 신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PSI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의 반은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반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다. 채점 방식은 각 척도별로 응답자가 반응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가능한 점수에서 이 점수를 빼도록 되어있으며, 각 척도는 어머니에 대한 문항과 아버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따로 채점된다.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Hoffman, 1984). PSI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네 가지 하위 척도에 대하여 .88에서 .92의 범위에 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49에서 .96의 범위에 있다(Hoffman, 1984).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5, .84, .70, .79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 독립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7, .87, .78, .86이었다.

2)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 검사

부모에 대한 고등학생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판을 본 연구자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IPPA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75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IPPA는 애착의 세 가지 차원(상호 신뢰의 정도, 의사소통의 질, 분노와 소원의 정도)을 재도록 고안되어 있는데(Armsden & Greenberg, 1987, 1989), 신뢰 차원(10 문항)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 안전성을, 의사소통 차원(9 문항)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소원 차원(6 문항)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로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IPPA의 개정판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동료에 대한 애착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의 IPPA와는 달리 IPPA의 개정판은 세 가지 차원에 대한 하위 점수를 제공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대한 총점만을 제공하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관계가 더 안전함을 의미한다(Armsden & Greenberg, 1989). IPPA의 어머니와 아버지 척도에 대한 점수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87, .89이었고, IPPA의 부모 애착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이었다(Armsden & Greenberg, 1989).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7, .89이었다.

3) 진로태도 측정도구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이기학(1997)에 의해 개발된 진로태도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진로 결정에 대한 청소년의 준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5개의 하위 차원을 가진 총 4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성 차원(10 문항)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목적성 차원(8 문항)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보상 등과 관련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더 관련이 많은지를, 확신성 차원(10 문항)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준비성 차원(10 문항)은 현명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 능력을, 독립성 차원(9 문항)은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측정도구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에서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기학(1997)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다섯 가지 하위요인, 즉,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8, .75, .75, .76, .75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결정성 .91, 목적성 .82, 확산성 .78, 준비성 .86, 독립성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먼저,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심리적 분리 변인들(즉, 부에 대한 태도적 독립, 모에 대한 태도적 독립, 부에 대한 갈등적 독립, 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 부에 대한 정서적 독립, 모에 대한 정서적 독립, 부에 대한 기능적 독립, 모에 대한 기능적 독립)을 한 변인 군으로 하고 진로성숙 변인들(결정성, 목적성, 확산성, 준비성, 독립성)을 다른 한 변인 군으로 하는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남녀를 구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들(즉,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을 한 변인 군으로 하고 진로성숙 변인들을 다른 한 변인 군으로 하는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남녀를 구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검증하였다.

결 과

1. 자료의 양호도 검증 결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료의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형성, 동변량성, 극단치를 검토하였다. 먼저, 선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변량 산포도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적 분리 검사(PSI)의 네 가지 하위 척도와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 검사(IPPA)의 두 가지 하위 척도가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와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변량성 또한 이변량 산포도를 사용하여 검토되었는데 검토 결과 동변량성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극단치를 검토하기 위해 $p < .001$ 수준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극단치를 가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분석 결과

본 연구 참가자들이 자신의 부모들에 대해 보여주는 심리적 분리 및 애착의 정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독립 변인의 점수에 대한 t-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이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정준상관분석 결과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분리 변인들을 한 변인 군으로 하고 진로성숙 변인들을 다른 한 변인 군으로 하는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했다(Pillai's $V = .47$, $F(40, 1060) = 2.78$, $p < .00$). 심리적 분리 변인들과 진로성숙 변인들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차원축소분석(dimension reduc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개의 정준상관근(canonical roots)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 정준상관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58$, $F(40, 909.45) = 3.00$, $p < .00$). 이는 첫 번째 근만이 이 모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첫 번째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30%를 설명하였다($R_c = .55$). 유의미한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 유형을 보여주는데, 유의미한 정준상관근의 해석은 정준상관근과 그 근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Tabachnick과 Fidel(1996)의 제안을 따라 구조계수의 해석에 있어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30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높은 정적 부하량(.81)을 갖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각각, .62, .60, .61, .79, .63)을 갖고,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낮은 정적 부하량(.38)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차원에 높은 부적 부하량(-.71)을 갖고, 목적성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45)을 갖고, 독립성 차원에 낮은 정적 부하량(.36)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기능적 독립 및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진로성숙의 목적성 및 독립성 차원과는 정적상관이 있으나 준비성 차원과는 부적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정준상관근은 또한 심리적 독립 변인들은 진로성숙의 결정성 및 확신성 차원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분리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했다(Pillai's $V = .55$, $F(40, 530) = 1.62$, $p < .01$).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차원축소분석 결과 다섯 개의 정준상관근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 근만이 유의미하였으며(Wilk's $\Lambda = .55$, $F(40, 447.40) = 1.64$, $p < .01$). 이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20%를 설명했다($R_c = .45$).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및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높은 부적 부하량(각각, -.73, -.63)을 갖고,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및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중간정도의 부적 부하량(각각, -.52, -.53)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결정성, 목적성 및 확신성 차원에 중간정도의 부적 부하량(각각, -.52, -.56, -.57)을 갖고, 준비성 차원에 낮은 정적 부하량(.38)을 갖는 것으로 나타

표 1.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정준상관분석에 대한 구조 계수

변 인	전체	남학생	여학생	
	근 1	근 1	근 1	근 2
독립변인				
태도적 독립-모	.62	-.52	.62	-.04
태도적 독립-부	.60	-.20	.56	-.04
갈등적 독립-모	.23	-.10	.17	-.67
갈등적 독립-부	.38	-.73	.40	.01
정서적 독립-모	.81	-.53	.87	-.15
정서적 독립-부	.61	-.28	.70	-.12
기능적 독립-모	.79	-.63	.70	.18
기능적 독립-부	.63	-.28	.59	.59
종속변인				
진로 결정성	.07	-.52	-.03	-.77
진로 목적성	.45	-.56	.48	-.27
진로 확신성	.03	-.57	.02	-.64
진로 계획성	-.71	.38	-.74	.05
진로 독립성	.36	-.07	.30	.12
정준상관계수(R_c)	.55	.45	.73	.46

났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 또한 유의미했다(Pillai's $V = .92$, $F(40, 485) = 2.73$, $p < .00$).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차원축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개의 정준상관근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Wilk's $\Lambda = .31$, $F(40, 408.17) = 3.16$, $p < .00$; Wilk's $\Lambda = .65$, $F(28, 340.34) = 1.52$, $p < .05$). 첫 번째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53%를 설명했고($R_c = .73$), 두 번째 근이 두 개의 변인

군간의 변량의 21%를 설명했다($R_c = .46$).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아주 높은 정적 부하량(.87)을 갖고, 어머니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및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높은 정적 부하량(각각, .62, .70, .70)을 갖으며,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및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각각, .56, .40, .59)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차원에 높은 부적 부하량(-.74)을 갖고, 목적성 차원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48)을 갖으며, 독립성 차원에 낮은 정적 부하량(.3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높은 부적 부하량(-.67)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결정성 및 확신성 차원에 높은 부적 부하량(각각, -.77, -.64)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2는 수용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들을 한 변인군으로 하고 진로성숙 변인들을 다른 한 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V = .16$, $F(10, 430) = 3.63$, $p < .00$).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들과 진로성숙 변인들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차원축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정준상관근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 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85$, $F(10, 428) = 3.70$, $p < .00$), 이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13%를 설명하였다($R_c = .36$).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아주 높은 정적 부하량(.95)을 갖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높은 정적 부하량(.63)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차원에 아주 높은 정적 부하량(.92)을 갖고, 확신성 차원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5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3은 수용되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분리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남학생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정준상관분석에 대한 구조 계수

변 인	전체	남학생	여학생
	근 1	근 1	근 1
독립변인			
어머니에 대한 애착	.95	-.73	-.90
아버지에 대한 애착	.63	.34	-.73
종속변인			
진로 결정성	.22	-.06	-.17
진로 목적성	-.03	-.38	-.10
진로 확신성	.50	.23	-.49
진로 계획성	.92	-.54	-.85
진로 독립성	.20	-.41	.13
정준상관계수(R_c)	.36	.43	.47

만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유의미했다(Pillai's $V = .24$, $F(10, 218) = 3.03$, $p < .00$).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차원축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정준상관근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 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Wilk's $\Lambda = .77$, $F(10, 216) = 3.07$, $p < .00$), 이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19%를 설명했다($R_c = .43$).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높은 부적 부하량(-.73)을 갖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낮은 정적 부하량(.34)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및 독립성 차원에 중간정도의 부적 부하량(각각, -.54, -.41)을 갖고, 목적성 차원에 낮은 정적 부하량(.38)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 또한 유의미했다(Pillai's $V = .23$, $F(10, 200) = 2.62$, $p < .01$).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차원축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정준상관근이 산출되었으나, 첫 번째 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Wilk's $\Lambda = .77$, $F(10, 198) = 2.75$, $p < .00$), 이 근이 두 개의 변인군간의 변량의 22%를 설명했다($R_c = .47$). 표 2.에 제시된 구조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정준상관근은 독립변인군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아주 높은 부적 부하량(-.90)을 갖고,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높은 부적 부하량(-.73)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군의 경우, 이 정준상관근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차원에 아주 높은 부적 부하량(.85)을 갖고, 확신성 차원에 중간정도의 정적

부하량(.49)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에 따라 진로성숙과 다른 관계 유형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4는 수용되었다.

논 의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에 대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심리적 분리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의 준비성 차원과의 관계는 가설에서 설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의 결정성 및 확신성 차원은 심리적 분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잘 분리된 고등학생이 그렇지 못한 고등학생보다 진로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주체적이며 진로 선택시 현실적인 욕구보다는 자기개발,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봉사 등과 같은 측면을 더 중요시 하나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능력은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분리변인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었다. 정서적 독립과 기능적 독립이 진로성숙을 가장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진로 발달과 관련하여 심리적 분리 검사를 사용한 선행 연구는 정서적 독립 및 기능적 독립과 진로 변인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갈등적 독립이 진로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심리적 분리가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 변인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의 역할을 밝히려는 후속 연구는 심리적 분리의 네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한 김정애(199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Thomason과 Winer(1994)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와 김정애(1998)의 연구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Thomason과 Winer(1994)의 연구 대상은 미국 학생이었다. 따라서 심리적 분리의 정도는 한국 학생의 진로성숙에는 영향을 주지만 미국 학생의 진로성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문화적 요인이 진로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의 역할을 중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예를 들면, Leong, 1995)에 의해 지적되어져 왔다. 심리적 분리와 진로 미결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찬주(1993)의 연구와 Byrne-Oberman(1993) 및 Blustein 등(1991)의 연구는 문화적 요인의 중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lustein et al., 1991; Byrne-Oberman, 1993)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진로 미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찬주, 1993)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진로 미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간 비교연구가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

숙간의 모호한 관계를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는 연구 참가자들의 가족구조에 있어서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상가정 출신이나 아니냐에 의해 중재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상가정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Thomason과 Winer(1994)는 정상가정 출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정 출신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흥미롭게도, 심리적 분리와 진로 발달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Blustein et al., 1991; Byrne-Oberman, 1993; Thomason & Winer, 1994)은 연구 대상자 선정 시 가족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심리적 분리와 진로 발달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보고한 연구(박찬주, 1993; Lopez, 1989; Polk, 1993)는 정상가정 출신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심리적 분리는 아마도 정상 가정 출신의 청소년의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변인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있다. 가족구조가 진로 발달과 심리적 분리와외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 가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가설적 관계를 지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들의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높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진로성숙의 결정성, 목적성 및 독립성 차원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안전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발견한 Kenny(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두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진로성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진로선택에 전념하는 정도(progress in committing to a career choice process) 및 진로검색 자기효능감(career search self-efficacy)과 관련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조사한 선행연구(Blustein et al., 1991, Ryan et al., 1996)의 결과와 일치하나, O'Brien(199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고등학생의 진로 발달에 관한 O'Brien(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선택의 일치성, 현실성 및 전통성, 진로방향, 진로선택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안전한 애착 관계가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를 대체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애착 이론(Ainsworth, 1989; Bowlby, 1982)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적 틀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Brien(1993)의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진로 발달의 다른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위의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 발달간의

관계는 진로 발달의 어떤 측면을 조사하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진로 발달의 어떤 측면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애착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어떤 측면은 이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볼 때, 진로 발달의 어떤 측면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관련이 있고 어떤 측면이 관련이 없는지는 분명치 않다.

남녀를 분리하여 수행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심리적 분리 또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은 성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여학생의 경우, 모든 심리적 분리 변인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독립 변인 중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및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진로성숙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 여학생의 경우, 진로성숙의 다섯 가지 차원 모두가 심리적 분리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진로성숙의 독립성 차원은 심리적 분리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성차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Lopez(1989)와 김정애(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Lopez(198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분리와 직업 정체감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직업 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Lopez(198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김정애(1998)의 연구에서도, 반대 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분리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유형도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가 진로성숙의 확신성 및 준비성 차원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진로성숙의 준비성 및 독립성 차원과는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목적성 차원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목적성 차원과는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준비성 및 독립성 차원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진로검색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Ryan 등(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Ryan 등(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이 진로검색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 모두가 진로검색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역할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반드시 성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진로 발달에 미치는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영향이 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진로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 설계상

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두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 연구가 아닌 상관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만을 사용했다. 심리적 분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진로성숙을 자기-보고식이 아닌 방법(예를 들면, 행동 관찰)으로 측정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만을 측정했다. 비록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을 더 잘 예언한다 할지라도(Penick & Jepsen, 1992), 이 관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배제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상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실체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이들 학생이 자신들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정도가 진로성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부모-고등학생 자녀간의 관계를 탐색할 때, 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및 기능적 독립이 진로성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담자는 부모-고등학생 자녀간의 관계를 탐색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승인 및 정서적 지지를 원하는지와 일상생활의 문제와 개인신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지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의 정도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가 부모-고등학생 자녀의 관계를 탐색할 때,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느냐 뿐만 아니라 부모, 특히 어머니와 어느 정도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나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성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성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중요성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워크샵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신들이 자녀들과 맺는 관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적절히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자녀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자녀들의 진로성숙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찬(199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정애(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박찬주(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ger, J. L. (1993). *The relationship of career maturity, family adaptability/cohesion and intervening variables among selected high school sen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9).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Preliminary test*

- manual*. Available from G. C. Armsden, 1554 NE 95th St. Seattle, WA. 98115.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yrne-Oberman, F. (1993).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 Dillard, J. M. (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s of suburban and urban middle-and urban lower-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311-320.
- Dillard, J. M. & Campbell, N. J. (1981). Influences of Puerto Rican, Black, and Anglo parents' career behavior on their adolescent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0, 139-14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 (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Hesser, A. (198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and the family system*. Houston, TX: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49 423)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M. (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 Jordaan, J. P. (1974). Life stage as organizing modes of career development. In E. L. Herr (Ed.), *Vocational guidance and human development* (pp. 263-295). Boston: Houghton Mifflin.
- Kenny, M. E. (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s: The value and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

- ment, 31, 39-46.
- Kenny, M. E. (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399-403.
- Khan, S. B., & Alvi, S. A. (1983). Educational, soci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357-364.
- King, S. (1990). Background and family variabl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Comparing hearing and hearing-impaired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8*, 240-260.
- Lawrence, W., & Brown, D. (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43-52.
- Lee, C. C. (1984).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attitudes of rural Black, White, and Native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177-184.
- Lee, C. C., Hollander, E. K., & Krupsaw, M. (1986).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rest and ability in science and mathema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83 088)
- Leong, F. T. L. (1995).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behavior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Hillsdale, NJ: Erlbaum.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 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Luzzo, D. A. (1991). *Social class and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Chicago, I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3 152)
- Luzzo, D. A. (1993). Predicting the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s: A comparison of person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71-275.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cNair, D., & Brown, D. (1983). Predicting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occupational expectations, and career maturity of Black and White male and female 10th grader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29-36.
- Nevill, D. D., & Super, D. E. (1988). Career maturity and commitment to

- work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139-151.
- O'Brien, K. M. (1993).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 Okun, B. F. (1984). *Working with adults: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s and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Osipow, S. H., & FitzGerald, L. F. (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Penick, N. I., & Jepsen, D. A. (1992).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208-222.
- Polk, N. E. (1993). *The relationship of separation and attachment processes of late adolescence to career decision-making obstac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Ryan, N. E., Solberg, V. S., &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84-89.
- Savickas, M. L. (1990). The use of career choice process scales in counseling practice. In C. E. Watkins, Jr., and V. L. Campbell (Eds.), *Testing in counseling practice* (pp. 373-417). Hillsdale, NJ: Erlbaum.
- Savickas, M. L., & Hartung, P. J. (1996). The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in review: Psychometric and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171-188.
-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and Row.
- Super, D. E. (1963). Vocation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Tasks and behaviors. In D. E. Super, R. Starishevsky, N. Matlin, & J. P. Jordaan (Eds.),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 79-95).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Crites, J. O., Hummel, R. C., Moser, H. P., Overstreet, P. L., & Warnath, C. F. (1957). *Vocat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research*.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uper, D. E., & Nevill, D. D. (1984). Work role salience as a determinant of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30-44.
- Super, D. E. & Overstreet, P. L. (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grade boy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uper, D. E., Thompson, A. S., Lindeman, R. H., Jordaan, J. P., & Myers, R. A. (1979).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School for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 Thomason, S. L., & Winer, J. L. (1994). Career maturity and familial independence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23-35.
- Woodbury, R., & Pate, D. H. (1974).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marital status to measures of the cognitive vocational maturity of delinqu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 1013-1015.

Role of Parent-Adolescen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ttachment Relationship in Career Matu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Hee-Yeo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whether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career maturity an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Subjects were 221 Korean high school juniors from intact families. Participants completed 1) a brief demographic data questionnaires, 2)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3)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4)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 Data were analyzed using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total sample and by gender. Psychological sepa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Although all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variables with the exception of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mother were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emotional independence and functional independence from mother. Parental attachment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Especially, attachment to mother was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Som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separ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were found. It was concluded that both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are important family relationship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ory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